

**출가 의미 · 활성화 방안 모색 포럼**  
조계종, 4월 8일 개최

‘출가 진흥 원년’을 선언한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출가상 정립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계종 교육원은 4월 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출가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출가, 그 새로운 의미를 찾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불교사회 정책연구소장 범용 스님이 발제를 맡으며, 토론자로 는 만당 스님(중앙종회의원), 허정 스님(교육위원), 무애 스님(교육아사리), 문광 스님(교육아사리)이 참여한다.

이번 포럼에 대해 조계종 교육원은 “출가자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중단적으로 여러 사업을 전개 중”이라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현대사회에서의 출가의 의미와 역할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4.13총선 종교평화 정착 포스터 제작·홍보 나선다**  
조계종 3월 30일 전국 배포

4.13총선에서 공직자의 종교중립을 권장하고, 종교 간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 포스터가 제작, 전국으로 배포된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만당, 이하 종평위)는 ‘4.13총선, 종교평화 문화 정착 포스터’를 제작, 3월 30일 배포했다. 종평위는 포스터에서 ‘종교중립 의무 위반의 예’로 △공직자들의 특정 종교화 기도 △신정정치 주장 △지역의 성시화 △성시화운동 추진 △시민합창단 찬송가 합창 등 6개 항목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종평위는 “공직자의 종교중립 의무 위반은 종교인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분열을 유발하는 행위”라면서 “이번 포스터 배포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가 후보자 또는 당선자 신분으로서 종교중립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점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평위는 종교간 평화를 위해 ‘깨끗한 선거 위한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종평위는 신고 사례 관별 후 해당 정당 및 후보자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언론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등 공직자의 종교중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 “용성 스님 진영, 근·현대 변화를 담았다”

**이정은 범어사 학예실장, <대각사상> 기고논문서 주장**

근대 한국불교의 대표 선지식 중 한 명인 용성 스님(1864-1940)의 진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학술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근현대 선지식에 대한 진영 변화 연구는 동산 스님을 제외하고 이뤄지지 않아 연구에 대한 희소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정은 범어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대각사상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대각사상> 24집에 ‘용성 선사 진영에 나타난 근대적 양상’을 주제로 논문을 기고했다. 이 실장은 용성 스님을 화폭에 담아낸 진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고찰했다.

논문에 따르면 용성 스님의 진영은 크게 그림과 사진으로 나뉜다. 회화식 진영은 △서울 대각사 법당(1점) △범어사 성보박물관(1점) △장수 죽림정사 용성교육관 외부(1점) △장수 죽림정사 용성교육관 내부(1점) △부산 해월정사 시월전(1점) △부산 범어사 청련암 사무동외부(1점) △해인사 용담선원 칠불보궁(1점) △만사 윤필구 개인소장 1점 등 8점이다.

사진식 진영은 △그림 원화를 촬영한 1921년 진영(선학원 소장 1점) △범어사 성보박물관(1점) △구미 아도모리원(1점) △장수 죽림정사(1점) △서울 대성사(1점) △경주 천룡사(1점) △네팔 톱

비니 대성석가사(1점)과 진영이 된 사진으로 <동산대중사석영첩>에 실린 작은 사진 1점이 있다.

용성 스님에 대한 회화식 진영은 다시 재료적 측면에서 한국화와 서양화로 나뉜다. 이 실장은 “조선 후기부터 서양식 명암법과 음영법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 초상화도 입체감 있는 표현이 가능해졌다”면서 “이후 근대기로 접어들

**용성 스님 진영 변화 고찰**  
한국화·서양화·사진 모사 등 다양한 기법·매체로 변화해 “근대기법 이행의 대표 사례”

면서 사진과 같은 사실적 표현에 중점을 둔 진영들이 본격적으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용성 스님 진영의 원류는 어디에 있을까,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용성 스님의 진영은 1921년 사진으로 남아 있는 그림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1921년 제작된 진영은 이후 사진을 그대로 재현하는 사진식 진영이 제작됐고, 60년 이후 이를 그대로 다시 모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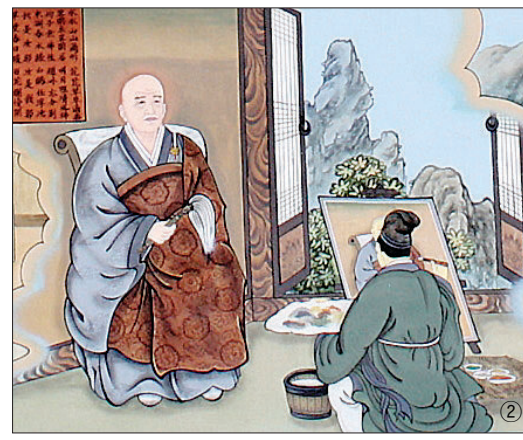


사진 번호 순대로 ①1921년 그림 원화를 촬영한 진영 ②죽림정사 용성교육관 외부의 진영(2004) ③경형모가 그린 범어사 성보박물관의 진영(1982) ④서울 대각사의 진영(1981). 용성 스님의 진영은 ①을 원류해서 사진식 진영으로 계속 모사·번주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용성 스님의 진영은 초상화 양식의 전통적 구도와 재료, 근대적 기법이 사용됐다”면서 “이후

재료의 근대성이 가미되면서 용성 스님의 진영은 재료적 측면을 살릴 수 있고, 진영을 제작한 화가의 화풍이 가미된 근

대적 양상도 나타난다. 화가의 화풍은 전통진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근대성”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식 진영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1921년 그림 원화를 촬영한 선학원 소장 진영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게 이 실장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1921년 진영은 치밀하고 정밀하게 극사실적 표현으로 제작됐다”면서 “이는 당시 한국화단을 넘어 진영도 근대적 기법인 사진식 초상화가 유행했음을 보이는 단서”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이 실장은 근대 선지식이자 불교개혁가, 민족운동가였던 용성 스님의 폭넓은 활동만큼 진영들도 근대 과도기적 양상을 띄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용성 스님 진영의 특징은 근대적 전통 초상화에서 사진으로의 전이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면서 “근대기를 넘어선 용성의 초상화는 동일 인물을 조성함에 있어서도 오히려 다양한 시대상과 초상화 제작 기법이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용성 스님의 진영은 원근과 음영의 서양화를 접목하고 사진 매체를 활용하는 등 근대진영의 전통과 새로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면서 “용성 스님의 진영이 단순한 초상화가 아닌 변화하는 시대상과 그에 따른 선승의 인식을 보여준 예”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소녀상 옆에 선 스님들 “역사를 잊지 말자”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 ‘위안부 해결 촉구’ 법회**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전면 무효 및 재협상을 촉구하며 불교계가 거리로 나섰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해운, 이하 사회노동위)는 3월 30일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기도법회’를 봉행했다. 대한불교청년회 및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자리에는 사회노동위원회 스님 10여 명을 비롯해 사부대중 20여 명이 함께했다.

사회노동위원회 해한 스님은 대표발언에서 “합의란 ‘둘 이상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함’을 뜻한다. 할머니들이 당사자 입에도 불구, 정부는 무슨 목적으로 할머니들 의견을 배제한 채 졸속 합의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과 함께 단체 관계자들이 3월 30일 열린 위안부 문제를 해결을 촉구하는 기도법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이끌어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면서 “용서는 진정한 마음으로 참회하는 자에게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아픈

역사를 잊지도 말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고 성토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선교양종 수사찰 면모 회복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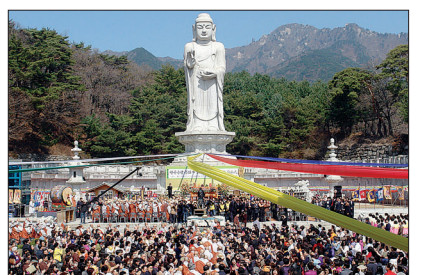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 진산식 봉행**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는 주지 능담 효광 스님 진산식 및 대구불교총연합회 회장 취임식을 3월 30일 경내 통일약사대불 앞 특설무대에서 봉행했다.

이날 진산식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밀은 스님, 총무원장 지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 선원 수좌 대표 스님, 대구불교방송사장 법일 스님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이제 승가가 화합하고 사부대중이 단결하여 부처님의 영산회상을 재현하고 조사님의 선풍을 신앙해 그 속에서 급빛 사자를 길러내고 신동 자재한 용을 낚아내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승 스님은 “오늘 진산식을 시작으로 수행자의 초심과 공심이 더욱 빛나고 사회와 국민의 행복이 함께하는 팔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효광스님 진산식이 3월 30일 동화사 통일약사대불 특설무대에서 봉행됐다.

공총림으로 크게 나아가기를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신임 주지 효광 스님은 “조선불교 선교양종 제일 수사찰의 면모를 다시금 회복해 새로운 팔공총림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동화사 대종모두가 겸허히 초심으로 돌아가 서로 사랑하고 소임을 다 할때 총림 발전은 더욱 앞당겨 질 것”이라고 말했다.

순문철 대구지사장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20년의 경력

**연등 자동 승강장치**

원주 보문사 대법당

**영가 위패단**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206)

제주 월성사 위패단

**인 등**

(실용신안 제20-0439286 / 디자인등록 제30-047201)

안정성, 편리성, 디자인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월성사 인등

**연 등**

**※ 공단연등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노랑, 진분홍, 영가등, 금등, 바림등, 만월등

월출산 무위사 대법당

장흥 보림사 위패단

각종 인등 건본

대나무 숲 부처님 (동불, 특수불, 각종 불상)

**정우불교예술원** www.jeongwoo.info

전화 : 010-3724-0455, 031)969-6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로 100번